

## 흐린 후 하반기부터 차차 갠다



정상진 아그파코리아(주) 전무

2003년도 프리프레스 업계 전망은 흐린 후 차차 갠으로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 이 같은 전망은 프리프레스 사업은 전통적인 산업이고 인쇄물에 따라 가동률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인쇄물 증감의 유동성은 우리 산업계와 정치적 환경 등 여러 가지 복잡한 함수관계를 지니고 있으며 적게는 미시경제와 그리고 크게는 거시경제의 영향을 상당히 받을 것이다.

### 경제환경의 변화

프리프레스 사업도 이제는 독자산업의 경제적인 마인드를 가져야만 생존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과거 70~80년대처럼 우리산업이 팽창하던 성장기에는 설비 투자가 곧바로 경쟁력 향상으로 연결되어 사업성장의 소중한 에너지자원으로 작용했으나 WTO 출범, FTA 보편화 등으로 세계경제의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거시경제는 미국과 일본, EU 등 선진교역국가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최근 급성장한 중국시장을 비롯하여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국가에까지 영향이 미치고 있다. 여기에다 미국의 이라크 공습임박 등 폭발성을 지닌 사건까지 합치면 프리프레스 사업의 경제영역은 엄청난 범위를 지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거시경제가 간접적인 영향권에 있다면 미시경제는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다.

미시경제는 주로 국내환경의 변화이다. 정치적으로는 대선이 가장 큰 행사였으며 가계대출 축소, 현금카드 사용범위 축소 등 우리 경제의 위험요소를 털어 내는 일련의 작업이 소비위축을 가져온 요인이 되었다. 한국은행과 KDI 등 정책기관과 삼성, LG, SK 등 대기업 연구소들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평균 5.3%에 이르고 있다. 대선 등의 영향으로 정책결정과 현황 파악이 미뤄진 전반기에는 성장속도도 느려질 것으로 예상되나 새 정부가 활력을 찾을 후반기에는 프리프레스 사업의 전망도 밝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작생력 확보 관건

아무리 산업이 활성화되어도 프리프레스 사업의 진정한 성장을 이룩하려면 수주, 생산 그리고 재무관리 등 선진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한다.

현재 생산환경은 과거와는 판이하게 다르고 인터넷 등 정보화의 영향으로 경기순환이 불규칙하며 시장흐름도 매우 급변하기 때문이다.

또한 똑같은 설비와 인력을 보유한 상황에서 차별화 된 전문화, 특성화 그리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향상과 기업 이미지향상, 숙련된 기술자보유 등 품질을 기초로 한 고객만족 경영이 우선 정착되어야만 가동률 증가로 인한 생산성 향상이 기대된다.



설비증설에 대한 욕구도 과거와는 다르다. 인쇄물 증가를 분석한 후 경영성 제고와 기업이미지 제고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파악해야 한다.

기술 인력이 절대 부족한 것이 현실이지만 전문성 정착 여하에 따라 업체마다 다양한 형태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영세 소규모 업체가 대부분인 프리프레스 업체는 튼튼한 자생력을 확보했으나에 따라 뚜렷한 성패가 결정날 것으로 전망되며 시설 흐름도 CTF와 CTP로 양분 될 것으로 분석된다.

### CTP와 CTF

CTP는 사실 지난해부터 시작되어 현재 약 60여대가 설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CTP시스템은 CTF와는 달리 필름 공정을 줄여서 이미지가 인쇄판으로 직접 출력되게 하므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높은 품질과 인력감축 효과를 가져다 준다. CTP 설치업체들은 빠른 속도와 고품질의 장점을 인쇄에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으며 수주전이 치열한 인쇄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CTP 설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CTP의 등장으로 업계 일각에서는 CTF는 퇴보의 길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했으나 기존 출력실을 중심으로 탄탄한 영역구축을 하고 있다.

인쇄 생산 환경이 다양성을 추구하면서 초대형 인쇄사 및 자동화를 원하는 인쇄업체들은 모든 설비를 갖추는 원스톱 방식으로 한곳에서 자체생산을 마무리하는 반면 중·대형과 소규모 인쇄사를 중심으로 아웃소싱 경영방식이 성행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주로 출력실 등을 활용하여 생산활동에 나서기 때문에 CTF의 추세

는 그대로 유지되리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따라서 일선인쇄의 CTP와 출력실의 CTF라는 큰 물줄기를 형성한 채 일부 업체를 중심으로 교차 구입 형태가 정착화 될 것으로 결론되어 진다.

### 전문 경영인이 주도

설비도입은 대개 생산성 증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서 비롯되고 있다. 누구나 설비를 구입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가 주어진 현 시점에서 비교 우위를 확보하는 길은 내수는 물론 수출까지도 넘보는 정책적 아이디어와 마인드를 지닌 경영자 밖에 없다.

생산 환경이 날로 투명해지고 표준화된 작업환경을 가진 한국적인 여건에서는 최고 경영자의 리더십은 바로 그 기업의 미래를 조망하는 소중한 평가의 기회로 다가서고 있다.

프리프레스 산업도 일반 기업처럼 Input(투자 및 주문) - Process(제조) - Output(생산) 등의 경기순환을 가지고 있으며 재무관리 등 정책과 비전을 요구받고 있다. 날로 악화되고 있는 생산환경을 밝고 투명하게 하는 지혜는 탁월한 경영관과 리더십에서 비롯되고 있다. 시대를 리드하는 경영철학 없이는 프리프레스 업체를 더 이상 이끌 수 없으며 정부에 의한 강제적 구조조정 보다 시장에 의한 자율적인 구조조정 속에서 퇴보나 정화의 길로 접어들게 될 것이다.

프리프레스 업체는 앞으로 선진 경영시스템 정착여하에 따라 극명하게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것이며 이런 현상은 당분간 꾸준히 지속되리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우수업체들은 생산에 탄력을 받아 빠른 속도로 이익이 증가하겠지만 하향세를 걷는 업체들은 폐업의 길로 접어들어 소리 없이 사라질 것이다. 프리프레스업도 이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며 투철한 경영의식과 사명감을 가진 전문 경영인이 업계를 주도하는 패러다임이 형성되고 있다.